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1일 월요일 음 8월 11일 (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0/28℃
모레	맑음	21/27℃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7~29℃로 예상된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다. 아직 자외선지수가 높으니 외출 시 유의해야겠다.

	해뜸 06:21 해짐 18:32		달뜸 15:32 달짐 00:36
물때	만조 07:02 20:27		간조 02:33 13:09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美 그린란드 합의'에 웃는 덴마크… "주권 지켜"

구체적 합의 내용은 비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안보에 관한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덴마크와 그린란드에서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미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 직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 "(이번 합의는)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성, 그린란드인의 자결권을 인정한다"며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방문한 덴마크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3자 모두 상세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 확보를,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과 자결권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쪽에선 무엇보다 '주권'을 지켜냈다는 데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몇몇 덴마크 매체들도 이번 합의를 '조용하지만 중요한 승리'로 보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부 미 현
정치부장

공공기관 이전… 첫 특별자치도 의미 살려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지역 간 경쟁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한국마사회 등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삼고 유치를 위한 도민의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공공기관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제주가 희망하는 기관을 정부 이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달라는 요구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공공기관 이전은 사람과 기회, 산업과 연구 역량을 지역으로 옮겨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에 제주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함께 기관별 유치 논리와 실행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마사회 이전은 국가 말산업 정책 기능과 국내 최대 말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한국공항공사 이전은 제주공항과 제2공항,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제주와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발전과 기관의 기능을 함께 키우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이자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성하는 독립된 하나의 권역"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제주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권이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넓히는 국가균형성장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정당과 이념의 차이가 있어도 제주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제주는 이전 기관이 쓸 부지와 조기 이전을 위한 임시청사,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의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제2차 이전에 제주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9개 기관 850여 명이 옮겨오는데 그쳐 기관과 인원 모두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며 "2차 이전에는 1차의 한계와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2027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관 '0'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대신 '선택과 집중'에 방점이 찍혀 기관 분산이 고루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무부와 경찰청 등 주요 부처는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 제주, 그에 걸맞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열린마당

탈탄소 녹색 교육 전환을 위한 주체별 역할

김 지 은
제주도 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주 환경교육도시 포럼'에 참석해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환경교육의 전환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나눴다. 이 포럼에서 강조됐듯,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적 변화를 넘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도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지식 전달에서 나아가, 기후위기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환경·보건·교육·복지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 그리고 이를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후·생태·자원순환·건강을 교과 및 제주 지역의 환경 현안과 연결해 학생들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환경교육기관과 시민사회는 제주의 생태와 생활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의 참여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기업과 관광·산업계도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산과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는 환경과 건강, 교육과 정책을 연결하는 전문적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귀환을 기다리는 지역사회의 약속

강 창 규
서귀포시 표선면 안전협의체 단장

실종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너무 빨리 묻는다. "왜 혼자 나갔을까?", "보호자가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은 원인을 찾기보다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정작 필요한 대응을 늦출 수 있다.

실종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안전 문제다. 건강 상태, 돌봄의 공백, 주변 환경과 정보 단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취약계층의 실종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신속하게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준비하는 일이다. 식별 정보와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 복지기관, 행정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실종 대응은 초기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가 망설여지지 않는 문화와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다.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함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단 10분만 투자해 보자. 연락이 끊겼을 때 누가,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다. 작은 준비가 실제 상황에서 혼선을 줄이고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다.

주민의 관심과 마을 공동체의 협력,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연결될 때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